

'93. 9월

<國內>

내무부는 소방기기 배선에 내열, 내화 전선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소방법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으며 곧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점차 대형화 되고 있는 화재사고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방안의 일환이며 한국전선공업 협동조합은 소방법 관련 규정 개정 즉시 시행을 위해 이미 '93. 4월 공업진흥청으로 부터 내열, 내화 전선의 단계표준 규격승인을 득하고 이에 따른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소방용 내열, 내화전선은 금성전선등 국내전선 제조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다.

<필리핀>

필리핀은 만성적인 電力不足事態로 經營成長을 하향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여, 필리핀 國營電力會社는 최근 電力不足事態를 내년 이전까지는 반드시 종식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Luzon지역의 電力需要가 3,300Mw인데 2,500Mw의 공급능력만을 보유하고 있는 國營電力會社는 연말까지 900Mw 發電所를 가동시켜 Luzon 本島에 대한 電力危機를 해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國內>

상공자원부는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 조기에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을 집중지원해 나간다는 목표 아래 그동안 분리운영해온 '유망중

소기업'제도와 '기술선진화 중소기업'제도를 통합,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금부문에서만 우대를 받았던 유망중소기업은 기술지원까지 받고 기술선진화 업체는 기술지원이외에 자금부문에서도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정부는 사라와크주 바쿰의 수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승인했다. 이 계획은 이 지역의 수력자원을 개발, 3만 6천 메가와트의 발전소를 건설, 해저케이블로 말레이시아반도까지 송전한다는 방대한 구상으로 소요자금은 300억 링기트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라와크주는 칼리만탄島에 있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州都인 쿠친에서 650킬로미터 내륙으로 들어간 카피트都의 수자원을 개발하는 것인데 이 계획은 10여년전부터 검토돼 왔다.

<美國>

美國의 對中南美 지역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州가 그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92년 美國의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연안국들에 대한 수출은 518억弗로 91년에 비해 17%가 증가, 美國의 전체 수출증가율인 6%보다 무려 3배 정도의 높은 신장률을 보인 가운데 텍사스州가 미국 전체의 對 중남미 수출의 45%인 231억弗을 차지함으로써 중남미 수출의 중심지역으로 떠올랐다.

텍사스州의 對中南美 수출을 국별로 살펴보면 인접국인 멕시코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80%인

188억弗이 집중된 외에 베네주엘라(13억弗), 콜롬비아(6억 7천만弗), 브라질(5억弗), 아르헨티나(3억 5천만弗), 칠레(1억 3천만弗) 등이 주요 수출 대상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종 輸出商品은 電子·電氣部品 및 제품, 각종 산업설비 및 기계류, 컴퓨터 기기, 수송장비, 화학제품 등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國內>

상공자원부는 산업폐기물 소각로등 297개 품목을 개발 및 양산대상품목, 실린더헤드등 89개 품목을 양산대상품목으로 각각 지정하는 등 총 386개 품목을 93년도 제2차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대상품목으로 지정, 사업촉진업체에 대해 시제품개발자금 299억원과 양산화설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고시된 품목은 개발 및 양산대상의 경우 ▲ 기계류 및 부품이 187개 ▲ 전자기기 및 부품이 98개 ▲ 소재류가 12개이다.

<日本>

일본에선 장기간의 수요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입 비즈니스가 엔高에 힘입어 활기를 띠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日수입업자들은 일본에 없거나 앞으로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제품을 적극 수입, 시장 활성화 재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경쟁사가 취급하지 않는 상품을 반입하려는 벤처정신도 두드러져 수입 시장은 지금까지 일본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제품들도 자주 눈에 띄고 있다. 게다가 외산제품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위축된 구매심리를 자극하고 있어 시황개선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國內)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향상을 위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구성을 올해의 19개에서 내년에는 30개로 확대하고 산업기술연구조합도 올해의 70개에서 75개, 이업종교류그룹의 결성도 113개에서 130개로 각각 확대토록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개발지원의 효율화를 위해 각종 재정기금에 분산돼 있는 기술개발자금의 통합, 일원화를 추진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자금자원을 확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부문은 올해의 900억원에서 1,444억원, 특정연구개발사업부문은 1,030억원에서 1,361여원으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海水淡水化·발전플랜트의 건설상담이 진행돼 주목되고 있다. 계획의 코스트는 약 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국제입찰에는 한국기업을 비롯 스위스의 아세아 브라운보베리(ABB), 미국의 백텔등 歐美기업과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슈아이바지역 제다 서쪽에 하루 1억갤런의 해수담수화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단일 해수담수화 프로젝트로서는 세계 최대 수준급이다. 또 대량 전력소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인접지에 출력 400~500MW급 화력발전플랜트의 건설도 예정돼 있는데 SWCC가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國內)

공진청은 국제품질보증시스템(KS 9000/ISO 9000)인증제도의 연내 실시와 관련, '품'등급획득업체를 KS 9000/ISO 9000 인증획득업체로 유도하고 국내 주요기업의 품질경영 수준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추진시책의 일환으로 2100여개의 '품'등급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경영진단을 전면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공진청에 따르면 지난해 품질관리등급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자율관리 실시 이후 등급획득업체들의 자발적인 품질관리 활동이 오히려 위축되었을뿐 아니라 사후관리에 대한 허위보고서 작성, 시중유통등급제품의 품질불합격을 상승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 따라 이같이 품질경영 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世界)

유럽은 EC통합이래 국가간 공급전압이 영국 240/415V(+14.6-15.4), 영국이외 국가 220/380V(±22)로 서로 相異하여 무역장벽처럼 여겨졌으나, 95. 1. 1부터 1단계로 영국은 230/400V(-6%~+10%), 他 10개국은 230/400V(-10%~+6%)로 변경하고, 2003. 1. 1부터는 모든 EC국가가 230/400V±10%로 통일할 계획이다.

(世界)

미국의 GE사는 일본 동경전력(주)와 총 계약금액 12억불에 달하는 시설용량 합계 2,800Mw인 복합화력발전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1990년대 중반 상업운전을 목표로 일본 Yokohama에 건설될 동

복합화력발전소는 시설용량면에서 세계 최대규모로, GE사가 개발한 최신 복합화력기술인 STAG 109F Unit 8조가 설치될 예정인데 각 Unit는 MS 9001F형 가스터빈 1기와 신형 가압재령증기터빈 1기, 수냉각식 발전기 1기가 직렬로 연결되어 Unit당 350Mw의 발전용량을 갖게 된다.

(베트남)

베트남은 에너지部관리 및 주요 製造業者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방콕에 파견하여 電力不足事態 해결을 위해 泰國電力會社들과의 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Elenex Thailand博覽會에 참가한 다국적 기업들과 電線과 變壓器를 합작으로 白國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베트남대표단을 인솔한 6개 에너지 電氣機器製造회사를 담당하고 있는 部의 관리인 HT.An은, 이번 방문이 外國會社들과의 협력관계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베트남은 현재 Hoa Binh의 1,720Mw 水力發電所와 Ho Chi Minh市인근 Phn Lan 변전소間 1,500km의 500Kv 送電線건설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Australia 전력회사의 Pacific Power Int¹과 Victoria 電力廳이 설계를 맡았으며 外國의 회사가 5개 變電所입찰에 참가하였다.

(國內)

러시아 정부가 한국산 수입상품에 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입검사가 앞으로는 한국의 지정시험검사기관에 의해 실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국상품의 러시아 시장 진출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진청과 러시아연방 표준인증 위원회(COST)는 제2차 한·러 경제표준회의에서 한국상품에 실시하고 있는 러시아의 강제수입검사 제도가 양국교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의 해소를 위해 공진청이 지정하는 한국의 시험검사기관을 COST의 시험인증기관으로 인정, 한국 수출상품이 이 기관에서 시험을 거치면 러시아 세관은 중복검사없이 통관한다는 협정에 합의했다.

'93. 10월

〈國內〉

關稅감면물품·분할납부대상물품의 課稅評價가 현행 사전평가에서 내년부터 事後評價로 바뀐다.

또 국내 항만(공항)을一時통과하는 외국물품의 양륙절차가 내달부터 대폭 간소화 된다. 이에따라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가 주로 적용되는 설비투자용 기계·설비등의 통관절차가 한결 수월해지며 항만적체요인이 됐던 일시양륙 통과화물의 처리도 신속해 질 것으로 보인다.

財務部 및 關稅廳에 따르면 세관 당국은 수입화물의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대상물품의 과세평가를 수입면허후에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기업이 자동화설비·첨단산업용기자재 및 고가장비등을 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혜택을 받아 통관하는 경우는 수입면허전에 대상물품확인 및 과세평가를 반드시 실시토록 하고 있다.

〈日本〉

일본의 오프론은 엔고와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제어기기의 해외생산을 확대키로 했다.

인도네시아공장의 생산능력을 현재의 7배로 확대하는 외에 말레이시아공장도 20%정도의 능력증강을 꾀해 국내서 생산하는 해외용 릴레이와 스위치 모터를 이전키로 했다.

일본계 기업의 아시아 진출등을 배경으로 최근 해외수요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해외생산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가동한 인도네시아 공장은 2차레에 걸쳐 증설공사를 할 계획인데 94년 5월 완공예정으로 3천 3백평방미터의 건물과 제조라인을 건설할 방침이다.

〈日本〉

일본의 미쓰비시전기는 전력용기기의 본격 수입을 단행키로 했다.

해외의 중전메이커등 약 30개사로부터 큐비클등의 기기를 경쟁입찰을 통해 수입, 이를 전력 플랜트의 부수품으로 수출키로 했다.

미국 캐나다의 전력회사용으로 전력용 기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전액출자의 미국자회사 '미쓰비시 일렉트릭 파워 프로덕트'로부터 2년뒤 중 저압 전력용 가스 차단기를 수입, 국내전력회사에 판매할 예정이다.

전력용 기기는 사회의 인프라를 형성하는 중요기기로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가스터빈등의 로터등을 제외한 대부분을 일본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엔고로 코스트경쟁력을 잃고 있는 가운데 무역마찰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을 수입키로 한 것인데 앞으로 중전각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로코〉

모로코는 95년말경에 개통 예정으로 있는 알제리-모로코-스페인을 잇는 유럽-마그레브 가스파이프라인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가스를 이용한 거대한 가스발전소를 건설키로 하고 프랑스-스페인-모로코 3국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

프랑스 국영전기공사(EDF)와 스페인 전기공사(Endesa) 및 모로코 전력공사(ONE) 등 3개사는 모로코의 수도 라바트 북쪽에 있는 케니트라시에 400MW규모의 가스발전소를 건설키로 했으며 이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약 F.Fr. 20억(3억 4천만弗)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臺灣〉

대만정부는 향후 10년간 신규로 필요한 발전용량인 11,750Mw의 약 절반 정도에 대해 국제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금년초 대만정부는 대만전력공사(TPC)를 1994년초 부분적으로 민영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총자산가치 75억불로 평가되는 동·국영전력회사의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대만전력공사는 향후 10년간 석탄 및 천연가스, 석유를 연료로 하는 1,200Mw급 화력발전소 10기와 2,000Mw의 수력발전소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만 전력공사는 급증하는 전력수요의 충족을 위해 원자력을 제외한 발전용량을

현재의 19,250Mw에서 2002년까지는 최소한 31,000Mw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國內〉

정부는 입찰비리를 근절키 위해 정부투자기관의 1억원이상 물자구매와 1백억원이상 시설공사는 조달청에 위탁, 발주토록 할 계획이다.

조달청으로 이관될 정부투자기관의 물자구매대상은 1억원이상으로 하되 한전의 변압기와 같은 특정기관의 중점구입물품 등은 제외키로 했다.

또 시설공사는 1백억원이상 공사중 PQ(입찰자격 사전심사)공사대안입찰공사 설계시공 일괄공사(턴키베이스)등을 포함키로 했다.

〈日本〉

일본의 가와사키(川崎)중공업은 자가발전등에 사용되는 범용가스터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대리점망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의 트랙터즈 말레이시아社와 제휴, 판매외에 조립과 수리업무를 위탁한 동사는 내년중 아시아 歐美의 주요시장을 커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동사는 5천 킬로와트급 이하로 약 70%의 국내 세어를 가진 톱 메이커이다.

트랙터즈 말레이시아는 건설기계 디젤발전기의 유력메이커이다.

〈國內〉

내년부터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국제입찰 참가업체 제한 및 승인제가 폐지되고 업체 자율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최근 상공자원부가 업체 자율경

쟁 촉진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현행 대외무역 관리규정상의 국제입찰참가 제한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현재 업종별로 최종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다.

상공부는 지난달 관련업체와의 모임에서 현행 대외무역관리 규정상 500만달러 이상 규모의 국제입찰 참여시 업체수를 3개 업체로 제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국내업체의 자율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대외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관련규정의 전면 개편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90년대말까지 총 7,611MW에 달하는 발전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며 이중 가스 복합발전은 84%를 차지할 전망이다. 4,146MW는 현재 건설중이며 2,265MW는 연말까지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소건설 투자비의 65%는 민자발전이다.

국영 전력공사(PLN)는 16억불에 달하는 3개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 계약 체결을 준비중이며 계약 방식은 수의계약으로 독일의 ABB와 일본의 미쓰비시, 스미토모(住友)가 확실히 되고 있다. 전력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가스발전소 계약단가는 MW당 Cocycle이 62만불, Open cycle이 75만불이다.

〈日本〉

일본의 橫河전기는 내년 4월 인도네시아에 현지 자본과 합작으로 동남아시아 첫 플랜트제어기기의 엔지니어링 보수서비스 전문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현지 기업용 판매를 늘려가기 위해 현지 기술자를 육성, 지역의 언어와 문화에 대응한 기기와 시스템을 제안할 계획이다.

신설회사명은 '橫河일렉트릭 인도네시아(가칭)'로 본사 사무소는 자카르타에 두기로 했다.

橫河가 자본금의 50%이상을, 현지대리점 등이 나머지를 출자하여 설립할 방침이다.

동남아시아지역의 합작회사는 싱가포르에 지역총괄회사, 말레이시아 태국의 판매회사등에 이어 다섯번째인데 엔지니어링 서비스 전문 회사는 처음이다.

〈獨逸〉

독일의 지멘스는 94년말까지 중국에 20개 합작기업을 잇달아 설립, 모두 약 30개 합작기업으로 시장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동사는 93년 1-10월사이 북경·상해·광주·심수·남경등 7개의 합작기업을 잇달아 설립했는데 취급분야는 전화시스템 스위치기어 텔리컴·트랜스미션 디지털이동 텔리컴설비 발전소제어시스템 바라스트 등이다. 94년말까지에는 20개이상의 합작기업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로써 중국의 경우 자산합계가 5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새로운 분야로서는 자동화 기술, 저전압스위치, 통신케이블, 발전기, 스팀터빈, 전도용 제어 장치등을 계획하고 있다.

〈日本〉

일본의 YUASA는 중국 천진시에 오토바이용 鉛蓄電池 생산을 목적으로 한 합작회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금년 1월부터 일본

전지가 대만 합작회사를 통해 오토바이용을 생산하고 있는데 일본의 전지메이커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에선 앞으로 오토바이의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일본계 2륜차메이커도 생산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YUASA는 내년 7월부터 연산 48만개 체제로 생산을 개시, 장차는 자동차용도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설립하는 합작회사는 '天津湯淺蓄電池유한공사'로 자본금은 2백 55만달러이며 출자비율은 YUASA 50%, 유아사상사 5%, 중국의 축전지메이커인 천진시축전지창 45%이다.

〈國內〉

공업진흥청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품질향상과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행정규제에 따른 각종 경비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제도개선을 통한 행정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진청은 이같은 행정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각종 인·허가요건 완화등 32개 과제를 선정, 23개 사항의 행정규제 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했으며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진청은 앞으로도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히 제거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다.

〈日本〉

일본의 샤프와 태양열 온수기메이커 아사히솔라는 일반가정용 태

양광 발전설비의 실용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기술정보를 교환, 발전효율향상과 저가격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일반가정용 태양광발전설비는 태양전지패널을 주택의 옥상등에 설치하여 가정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충당하는 시스템인데 석유화력 및 석탄화력과 달리 대기오염의 우려가 없는 클린에너지의 이용법으로 주목되고 있다.

'93. 11월

〈國內〉

상공자원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는 산업현장의 공통으로 기술 108개 과제를 '93년도 공업기반기술 제3차 신규과제로 선정, 앞으로 3년간 총 830억원을 투입해 개발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를 위해 우선 금년중 개발사업 참여기업에서 122억원을 부담하고 공업기반기술 개발자금에서 158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2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獨逸〉

독일의 지멘스社は 화력발전소 설비의 국외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에 생산거점을 설치할 방침이다.

러시아의 산크트페테르부르크에 레닌그라드기계공장(LMZ)과의 합작에 의한 인터크르보(지멘스가 42%출자)가 있으며 중국에 수출하는 가스터빈의 제작이 시작됐다. 또 중국과 4건의 합작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초의 계약이 성립될 전망이다.

〈國內〉

工業振興廳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94년도 중소기업 경영 및 생산 현장기술지도 계획을 확정, 공고 했다. 工振廳은 이 계획에 따라 1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2개월 동안 업계의 기술지도 신청을 받아 지도업체를 확정 후 기술지도에 들어갈 계획이다.

〈國內〉

정부는 기계류 부품·소재 국산화 등을 촉진키 위해 올해 공업발전기금 지원규모를 당초의 1,958억원보다 180억원이 증가한 2,138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촉진을 위한 시제품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로 당초 45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이중 電機부문에서는 상반기 20억원에 이어 5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日聯〉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플레 회피 및 아세안 자유무역권(AFTA)의 공통효과 특혜관세(CEPT)에 대응, 최근 약 500개 품목의 수입관세 감면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수입관세 인하품목에는 발전기, 변압기 등 전기 및 전기기구 부품이 25-55%이던 세율이 5-30%로 대폭 인하됐다.

〈中國〉

중국은 양자강 유역 三峽댐 건설에 초기 11년동안 적어도 308억 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외자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주요장비 부품의 디자인

및 제조분야에서도 외국기업들과 협력을 벌일 예정이다. 三峽댐 프로젝트에는 길이 1,983m, 너비 185m댐과 수력발전소 및 수로설비 건설이 포함돼 있다.

〈世界〉

프랑스 르노그룹의 공작기계메이커 르노 오토머시온은 산업용 로봇부문을 스웨덴·스위스의 중전메이커 아세아 브라운 보베리(ABB)그룹에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업의 매각과 함께 르노 오토머시온은 ABB와 합작으로 車體조립나인의 자동화시스템 개발에 손델 새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臺灣〉

대만의 중앙무역개발공사(CT & D)는 홍콩의 화교계 대규모 부동산개발회사, 신세계발전그룹등과 합작으로 베트남의 호치민시 교외에 대규모 화력발전소를 건설키로 했다. 총투자액은 2억 5백만달러. 베트남정부의 인가를 취득, 이미 기초공사에 착수했다.

CT & D가 호치민시 교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개발계획의 일환인데 외자계 기업에 의한 첫 화력발전소 건설프로젝트가 된다.

대규모 화력발전소를 건설 운영하는 것은 신설한 히프 포크 파워 캄퍼니인데 CT & D를 중심으로 신세계발전그룹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했다.

〈國內〉

우리나라의 忠南 泰安과 중국의 山東省 靑島를 잇는 전장 570km의 韓·中 해저광케이블 건설을 위한 건설 및 유지보수협정이 체결됐다.

이 해저케이블은 이번 협정체결 후 광전송시스템설계 및 건설루트 선정을 위한 해양조사등을 실시한 뒤 내년 6월 건설공사에 착수, 오는 9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인데 약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건설비는 양국이 50%씩 분담한다.

이 케이블은 56-Mbps(초당 5억 6천만비트의 정보전송)급 2개 시스템으로 건설돼 전화급으로 1만 5,120회선의 용량을 갖게 된다.

〈터키〉

터키의 발전기 및 케이블·전선 등 전기산업관련용품 및 설비시장을 겨냥해 열리는 터키 전기산업 전시회(Elenex Turkey 94)가 내년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터키 이즈미르의 국제전시장에서 열린다.

금년까지 터키전기산업 전시회는 이스탄불의 힐튼 호텔전시장에서 열렸으나 내년부터는 3만평방미터의 전시면적을 갖춘 이즈미르의 국제전시장에서 전시규모가 확장돼 열린다.

〈世界〉

수입 LNG를 연료로하는 중국 최초의 대형 복합사이클 가스터빈 발전소 건설계약이 미국 왕메릴 인터내셔널(WM)社와 江蘇省電力局간에 체결되었다. 양자강연안에 240만Kw(건설비 24억\$)를 BOO(Built-Own-Operate)방식으로 WM 사 및 관련회사가 70% 江蘇省이 30%의 지분을 소유하는 이 발전소는 18개월 이내에 착수하여 97년에 운전 개시예정이다.

〈英國〉

2년 반전에 민영화 단계를 거친

영국의 전력사들은 이제 국내시장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양대 전력사인 National Power와 PowerGen은 인도, 구동독 및 미국 등지에서 해외 사업을 잇달아 발표하였으며 군소 지역 배전회사들도 해외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은 국내 전력설비의 과잉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日本〉

일본의 쇼와(昭和)전공과 아사히 화학공업은 범용수지인 폴리에틸렌 생산 제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연간 2만톤의 폴리에틸렌을 상호 OEM(상대 브랜드에 의한 생산)공급함과 동시에 양사 모두 자사 플랜트의 일부를 증지기로 했다.

앞으로 공동배송등 물류면의 협력과 품목의 통합도 추진키로 했다.

양사는 생산제휴에 따라 자사 플랜트의 가동률을 끌어올려 생산코스트 절감을 꾀할 방침이다.

이 합의에 따르면 쇼와전공이 아사히화학에 線型 저밀도폴리에틸렌(LLDPE)의 생산을 위탁하고 아사히화학은 쇼와전공에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과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을 공급하기로 했다.

〈獨逸〉

독일의 지멘스社는 중국에 발전설비제어기술의 합작기업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새회사는 지멘스 파워 플랜트 오토메이션(SPPA)으로 남경교외의 浦口에 본거를 두고 지멘스(전력부분의 KWU)가 60%출자하고

현지 파트너인 남경전력자동기기 총합공장(NAEF)이 40%를 인수한다.

합작회사는 지멘스가 개발한 대형발전소용 제어시스템 'TELEPERM'의 판매 서비스에서 출발하여 장차 컴포넌트의 생산과 아시아 각국에 대한 수출도 할 계획이다.

〈日本〉

일본의 도요(東洋)통신기는 내년 봄을 목표로 태국에서 제조하는 하이브리드IC(HIC)형 전류센서를 월 10만~15만개 능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동사는 相模사업소에서 월 20만개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센서의 수요대부분이 유럽용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태국의 협력공장에서 월 약3만개 체제로 생산을 개시하고 있다.

이번의 증강은 유럽용의 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내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효율적 생산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 센서는 앞으로 FAX와 전화에 대체하는 자동간이교환기등에 채용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동사는 전자부품사업의 최대 핵심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國內〉

최근 국제무역에서 상품규격, 시험검사, 품질관리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하는 기술무역장벽(TBT)이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수출입상품의 이중검사 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공인시험검사기관 지정제도가 준비되고 있다.

공인시험검사기관제도란 국가적 권위를 부여받은 인정기관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능력을 평가해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국가가 특정 시험검사기관을 인정하고 이곳에서 발부하는 상품의 시험검사 성적서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간 교역에서 이중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日本〉

일본의 마쓰시다전기가 중국에 전액출자한 소형 모터공장 '珠海松下馬達 유한공사'(ZEM)가 지난 9월부터 가동해 라디오카세트용 전자거버너모터 헤드폰 스테레오용 파워모터의 생산을 개시했다.

중국과 홍콩에서 AV용 소형모터의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생산을 단행한 것인데 내년봄에는 VTR용 로딩모터의 생산능력도 배가할 계획이다.

ZEM은 松下전기가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소형모터 전용공장이 다.

〈國內〉

정부는 선박 및 산업설비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장기 연불수출금융 규모를 내년에 7억달러 더 증액하고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도 올해 3조 6천억원에서 내년에는 5조 8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중소수출기업의 수출관련 자금조달과 관련, 일정기준 이상의 신용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수출신용장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허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무역업 등록 면제범위 확대, 수출자율

규제품목의 단계적인 축소등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수출 부대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하에서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지원방안으로 연불수출금융 규모 확대,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확대등 수출지원책과 함께 상역, 금융, 외환, 관세 및 물류, 노동등 전분야를 망라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國內〉

93년부터 2006년까지 14년간 원자력 14기, 유연탄 27기, LNG 12기, 석탄 4기, 수력 19기 등 모두 76基 3천6백12만8천kW 발전설비의 신규건설이 확정됐다.

91년에 최초 수립된 현장기전력수급계획이후 전면적인 1차 연동화작업 추진의 결실로 이날 최종 확정된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향후 14년간 ▲ 원자력 14기 1천2백80만kW, 석탄 및 국내탄 27기 1천3백57만kW, 석유 4기 45만2천kW, LNG 12기 6백32만6천kW, 수력 19기 2백98만kW 등 총 76基 3천6백12만8천kW의 발전소가 신규로 건설된다.

〈日本〉

일본의 三相전기는 중국 상하이에서 에어컨용 팬모터를 생산하기 위해 국영의 상해電視一廠과 합작계약을 체결했다.

합작기업의 자본금 1백82만달러 가운데 三相이 51%, 上海電視가 49%를 출자했다. 94년 3월부터 제조하기 시작, 96년에는 수출을 포함한 에어컨용 팬모터를 연간 80만대 생산할 계획이다.